

종단소식

조계종

조계사 대장경 정대불사

조계사(주지 현근)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또 12일 경기 양수리에서 방상 및 영산 대제를 실시한다.

은해사교구 올 업무보고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21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교구총회를 연다. 이번 교구총회에서는 97년 결산보고, 98년 교구주요업무보고를 비롯 각종 중요현안들을 논의한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포교·불사에 공헌한 공로로 거조암을 비롯 4개 사찰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태고종

경제회복기원 수륙대제

총무원(원장 인곡)은 1월 20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총무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1일 국가경제회복을 기원하는 수륙영산대법회를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봉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승교화종단의 이념정립사업, 대승계수지법회, 승려연수교육 등 올해 추진할 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중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전북교구 호국법회 확정

전북교구지방총회(의장 성삼)는 1월 23일 총무원사인 보문사에서 정지지방총회를 개최하고 총무원 조직정비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중점사업은 조직정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운동 등 지속적 추진, 분담금 제도 확립, 호국불사 대법회 봉행 등이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14일 오전 10시 관문사에서 98학년도 졸업식을 거행한다. 졸업생은 천태학과 12명, 교법학과 48명, 불교학과 95명 등 모두 1백55명이다.

이문수 중앙청년회장 유임

이문수 중앙청년회장이 13대 이 이어 14대 회장에 유임됐다.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이회장은 2일 종정 도용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회장은 "지역청년회 지원 강화 등 청년회의 조직을 종단차원에서 체계화하고 정비할 방침이며, 대내외적 활동 강화를 통한 종단위상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청년회 방향을 제시했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수강생 모집

서울교구와 대구교구 밀교문화대학은 28일과 3월 14일까지 각각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 밀교문화대학은 진각종학, 불교학 등을 교과목으로 한 기초과정과 반야심경, 밀교학 등의 중급과정을, 대구밀교문화대학은 기초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다. 서울밀교대학(02)913-0133, 대구밀교대학(053)255-1450

관음종

임원회의 올 사업 검토

총무원(원장 흥파)은 17일 오전 11시 논산 관음사에서 종단 임원회의를 갖는다. 이번 임원회의에서는 올 사업계획 검토 및 신임 종단간부 상정례가 있을 예정이다.

보문종

나라안정·통일기원 방생

보문사(주지 법준)는 8일 임진강 두포너투터에서 나라의 안정과 통일을 기원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법준스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불자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총화종

수진사 백일기도 회향

남양주 수진사(주지 남정)는 9일 경기 가평에서 신도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일기도 회향 및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남정스님은 "백일기도에 참가할때의 초발심대로 생활한다면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 것"이라며 "국가경쟁위기에 극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남방불교 비구니계맥 잇는다

남방불교의 비구니 계맥을 잇기 위한 '국제 삼단체 계회(三重大戒會)'가 15일부터 23일까지 인도의 대만사찰인 대각사에서 대만의 국제불광회세계총회(총재 성운스님) 주최로 열린다. 인도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는 11세기경 국내 정치의 탄압과 외침으로 비구니 계맥이 끊긴 이래 지금까지 여성의 출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스리랑카와 태국의 승왕을 비롯 각국의 고승 30여명을 장로아사리와 존증사르 인도 스리랑카와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서 141명이 참가, 사미니계와 비구니계 보살계를 수계한다. 재가불자 1천여명도 참가해 5계를 수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가산스님(한·대만불교회장)과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장)이 존증사

로 참가하며, 4명의 사미니가 비구니계를 수계한다. 포교원 사무국장 법성스님과 대만 불광산사 국제담당 의은스님에 따르면, 이번 수계법회는 제4차 국제승가연습회(國際僧伽研習會)에서 남전비구니계의 전수를 위한 국제계단을 실시한다는 결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승가연습회는 지난해 5월 대만불광산사에서 각국의 고승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의은스님은 이번 법회의 종지(宗旨)를 △부처님시대의 불교로 환원 △역성교단을 부처님시대로 회복 △국경을 초월한 3개5계의

전수 등이라고 밝혔다.

『비구니교단』 불교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한 지 5년 후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며 성립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아쇼카왕이 그의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불교와 비구니계를 전승시킴으로써 비구니교단이 완전하게 성립했다. 그러나 11세기경부터 남방불교국의 정치적 탄압과 외침으로 계맥이 끊겼으며, 비구교단만이 중국 미얀마 등으로부터 법을 이어 재전됐으나 비구니교단만은 계맥을 잇지 못했다. 현재 비구니가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다섯 나라뿐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가 공인회계사 건물을 매일 새로단장한 문화교육관. 조계종 포교원, 조계사 불교대학, 파라미터청소년협회가 최근 입주했다.

룸비니동산에 '만등불사'

대성석가사 5월10일 법요식...법당건립 순조

부처님이 태어나신 성지 네팔 룸비니동산에 부처님 오신날 1만등이 밝혀진다.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조실 도문)는 오는 5월 10일 연건경 2천5백 69평 규모의 법당건립을 위해 국내의 사부대중 3만여명이 참석하는 법요식과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대성석가사는 현재 7백83평의 제

1요사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1만여 평 부지에 지상3층 규모의 대법당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에 한 국사찰 대성석가사 건립불사를 추진중인 도문스님은 "2천년까지 국제회의장, 승려교육관 등을 갖춘 세계 최대규모의 사원으로 조성해 한국불교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며

동국대 2백명에 'MF 학비'

올 2억원 대여기로

동국대학교는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여를 주기로 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2일 실시한 자녀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대여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재학생 2백명에게 올 한해 동

안 각 1백만원씩 모두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극복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여장학금' 제도는 학부장의 추천에 의해 대상학생을 선발하고, 졸업후 2년내에 2회분할의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장기이식관리본부'

전문단체가 맡아야'

생명나눔 공영회 '장기이식관리본부는 민간 전문단체에 맡겨야 한다' 장기이식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5일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목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국양교수(기

천의과대학)는 '장기이식관리본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식의 현장은 역동적이며 인간적인 요소가 훨씬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실에 바탕한 장기기증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분배기구는 사망감, 경험,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종현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일본의 장기이식현황'에서 '일본처럼 장기이식 기증자와 환자 중분부(본부장 박진탁목사)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국양교수(기

"4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법당건립을 위한 '인등 1만등 만등불사'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2)765-0972

인각사 일주문 보수

반용사등 문화재 25건도

군위 인각사 일주문, 반용사 대웅전 등 성보문화재가 보수·정비된다. 군위군은 총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각사 일주문(3억1천만 원), 압곡사 영정각, 지보사 대웅전 등 11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이다.

또 경산시는 9억4천만원을 들여 반용사 대웅전 및 요사채(1억9천만 원)를 복원하는 등 15개 문화재정비사업을 펴기로 했다.

12년제 보살행퍼는 산골스님

진주 토왕암 불산스님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우이웃을 위해 12년동안 묵묵히 지내온 불산스님은 산골스님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진주시 정촌면 화계리 토왕암 주지 불산스님(49). 스님이 불우이웃을 위해 산사에서 저자거리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은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라는 지론 때문. 그러나 산문을 처음 나왔을 때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않은 일이었다. 마음만으로는 그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는, 그후부터 불산스님은 기금마련을 위해 사회를 그리기 시작했고 매년 연말 토왕암에서 '불우이웃돕기 전사회'를

서화전시 수익금 모아

소년기장 재조사 돌봐

가톨릭·기독교도 후원

개최한다. 스님의 따뜻한 원력이 알려지면서 지역내 화가들이 기증하는 작품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전시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불산스님은 소년소녀가장, 불우제조사, 독거노인 등 그늘진 곳을 찾아 희망한다. 때론 속마음을 훌훌 털어놓을 수 있는 자상한 아파가 되고, 때론 밥짓고, 빨래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과충부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살행까지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진주교도소 불자모임인 정불회



(회장 한윤갑)와 함께 하대동 성프란시스코 무의탁노인들과 평거 등 기독교아원등을 방문해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처럼 불산스님의 자비행으로 이제는 관내 구석구석 따뜻한 밥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진주시내를 한바퀴 돌리보고 산문을 들어설 때면 스님은 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한곳을 더 방문할 수 있었는데..."라고 되뇌인다.

김중근 기자

마/음/의/협/터

화엄동산



사는 일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현실 속의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 파산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인간 관계 속에서 빛어지는 갈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옥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살아있는 시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을 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새로운 서원을 세워가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담바라의 저자인 소설가 남지심 선생님이십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애타게 마음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감동에 젖게 될 것입니다. 연락기다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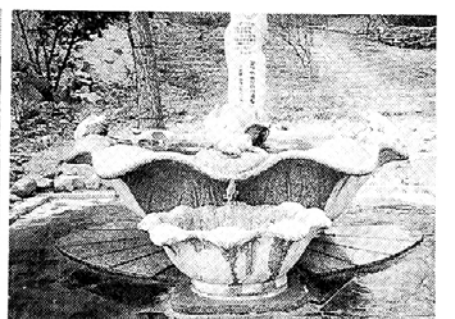
이달의 주제 : 좌절을 승화할 수 있는 힘...서원(誓願)

- 지도 : 남지심 선생님(우담바라의 저자)
- 소그룹 참여를 환영합니다.
-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전공부, 기도도 병행합니다.
- 회비는 월 2만원입니다.
- 문의 전화 : 607-2453 · 697-7778 · 692-4817
- FAX : 607-2453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등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